

씩씩하고 당당하게

‘대취타’와 ‘라데츠키 행진곡’을 감상하고 악곡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어요.

대취타



감상 영상

‘대취타’는 부는 악기인 취악기와 두드리는 악기인 타악기로 연주하는 곡입니다. 왕이 행차할 때나 군대가 행진할 때 연주되던 곡으로 오늘날에는 나라의 큰 행사나 공연에서 연주됩니다.



⇒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집사가 “명금일하대취타(하랍신다.)”라고 하면 징을 한 번 치고 ‘대취타’를 시작한다. 음악을 끝낼 때는 “허라금”이라고 한다.

- 1 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‘대취타’를 감상해 봅시다.
- 2 ‘대취타’를 들으며 음악에 맞추어 걸어 봅시다.

라데츠키 행진곡



감상

‘라데츠키 행진곡’은 오스트리아 영토를 지키는 데 성공한 라데츠키 장군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슈트라우스(요한) I세(1804~1849)가 작곡한 곡입니다. 오늘날에는 관현악 편성으로 연주회에서 연주됩니다.



- 3 군대가 행진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‘라데츠키 행진곡’을 감상해 봅시다.
- 4 ‘라데츠키 행진곡’을 들으며 음악에 맞추어 걸어 봅시다.
- 5 ‘대취타’와 ‘라데츠키 행진곡’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.

음악의 빠르기

음악에서 느껴지는 분위기

?



‘대취타’와 ‘라데츠키 행진곡’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나요?

